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화와 종교교과서 개발

김 재 영

서강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외국의 상황,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연결해서 종교교과서 발행과정과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인정제도가 생기면서 비로소 종교교과서도 하나의 정규 교과서로 인식되었고 또한 인정제도가 생기기 이전과 비교해서 내용적으로도 특정 종교에 대한 강조보다는 나름대로 종교일반에 대한 균형적인 열린 시각을 갖도록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감의 악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교과서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하나는 종교교과서 인정도서 신청자격은 제도적으로 사용자보다는 종교교과서에 대한 구상을 의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저자나 출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궁극적으로 자유발행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종교교과서를 나름대로 출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채택이나 거부 평가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종교교과서 인정제도가 아니면 종교교과 교육과정은 모두 학생의 관점이 어떻게 인정제도가 교육과정 안에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인정제도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고, 특정 종교도서의 종교교과서로서 인정 사용권 신청은 학교장에게 있고, 종교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은 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 지식의 내용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나 종교와 관련해서 갖게 되는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한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기존의 종교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중심으로 교과 과정이 서술되기 보다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어떻게 종교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있

는지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토대로 종교교과 교육과정 안에 개진되어야 종교교육의 악보로서의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인정제도, 종교 교과서, 공감의 악보, 자유 발행제도, 시민교육, 유럽과 북미의 종교 교과서 발행제도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논의는 주변이 아니라 이미 중심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곳곳에서 종교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름다운 애기보다는 종교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문제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걱정스러움과 더불어 비판적인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도 한다. 그러한 소리 속에서 다양한 처방도 계속 나열되고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지금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자리를 차지하려는 부산하고 요란스러운 소리도 들린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소리들의 틈을 통해서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가거나 확장하려는 은밀한 침묵의 소리도 들린다. 아름다운 합창이 그래도 넉넉하게 한국 사회에서 유지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르고 싶은 소리를 줄일 줄도 알고 주위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소리를 조절하기도 하는 아름다움이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어느새 그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제는 모두 독창을 하려고 마음껏 소리를 울려 잘 지탱해 왔던 합창의 선율이 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또한 잃어버린 합창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소리들도 있다. 특히 강제성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의 제정이 어떤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강변(強辯)이 많이 들린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 만능주의의 소리만 계속 커져간다면 합창의 자연스러움 보다는 또 다른 독창의 소리로 합창소리의 높낮이를 깨트릴 것이다. 독창의 소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합창의 소리를 지배해서는 합창의 아름다운 선율은 결코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법이나 제도는 합창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남아 있어야지 중심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합창보다는 분창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법이나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공감교육의 장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다. 특히 학교 교육기관인 중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은 앞으로 옆과 주변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조절하면서 함께 연주하게 될 미래의 시민 합창을 위한 최고의 훈련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어떤 교육보다도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음을 드러내어 주위의 음과 조우해서 아름다

음의 선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합창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 합창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음을 튼튼히 배우고 동시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음을 배울 수 있는 공감의 악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교교육에 대한 수요가 학교 현장에서 적어서 그런지 악보가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름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좋은 악보를 만들기 위한 규정을 ‘교과서 인정 제도’라는 틀을 통해서 마련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명곡의 악보는 산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와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처음에는 축적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없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과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천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에 대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직접 인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부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정보연구원 인정도서 심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도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답만을 여러 번 들었다. 혹시나 해서 인정 교과서를 간행하는 ‘한국 검정 교과서 협의회’나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에도 직접 문의를 하였지만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보관 자료들은 거의 없었다.

단지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 지원 하에 연구과제 보고서로 최근에 교과서 인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다. 주로 경기도와 충북 그리고 전북지역의 교과서 인정제도에 초점을 두어서 글을 전개하였지만 종교교과서 인정에 관한 기술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¹⁾ 이외에도 같은 교과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검인정 교과서의 변천에 대한 글이나 국정, 검정 그리고 인정제도의 준거에 대한 보고서 한편이 발표되어 있다.²⁾ 하지만 앞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와 관련된 기술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와 연구 범위를 네 가지 차원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첫째,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자료들 중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고시 자료들과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서 알게 된 인정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1) 홍우조 외,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 교과서 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6-02) 참조.

2) 허강 외,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03) 또한 김진영 외,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준거』(한국 검정 교과서 연구보고서, 2010-02) 참조.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배경과 시행절차를 검토해 보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둘째, 교과서 인정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이관한 업무이므로 절차과정에 있어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그런 다음 외국의 상황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교과서가 간행되고 심의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방대한 주제이므로 유럽과 북미의 종교교육을 이끌고 있는 대표기관이나 연구자들과 전자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어떤 교과서보다도 많은 검토와 시간을 요구하는 종교교육의 공감의 악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교과서를 앞으로 출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종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인정제도’와 연결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해 볼 것이다.

II.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배경과 변화

초기 대부분의 종교교과서는 처음부터 인정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을 고려하면서 출간되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기존의 종립 중등교육 기관에서 건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자유롭게 해당종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도서가 간행되어서 종교교육 교재로 사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교재 없이 기존의 종교 경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교리서를 도서로 채택하여서 종교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당받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더불어 학부모들과 교사들 중에서도 해당 종교교육에 공감을 갖지 못하여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기존의 해당 종립학교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종교교과의 정규화와 종교교과서의 인정 필요성을 교육부에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교과서의 인정제도는 처음부터 교육부가 주체적으로 계획한 제도라기보다는 해당 종립 중등교육기관의 종교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호를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으려는 목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 교과서의 인정제도가 시작된 기점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이다.³⁾ 당시 문교부는 종교 과목을 정규화 해달라는 해당 종립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4차 교육과정에 종교를 철학,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과 더불어 자유선택 교과의 한 과목으로 설정하도록 해주는

3)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대신에 학생이 원하면 다른 자유선택 교과의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교가 자유선택 교과의 정규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종교교과서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요청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나서 인정 신청을 요청한 도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교과서라기보다는 인정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신앙교육으로 사용되었던 도서였다. 또한 자유선택 교과의 한 과목으로 종교가 편제(編制)되어 있고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선택 교과에 대한 교육 과정과 종교 과목의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종교교과서의 인정에 대한 심사과정이 뚜렷이 확보되어 있지도 못하였다.

다음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⁴⁾ 단지 “자유선택 교과”라는 명칭이 “교양 선택 교과”로 바뀌었을 뿐이지 종교교육 과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다른 교양 선택 교과의 과목들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제 4차 과정시기와 별로 차이가 없이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특정 종교 중심의 종교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정식으로 종교교과서를 생각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대부분 인정도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재였지 종교교과서에 대한 개발이나 균등한 시각 안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요원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교과서에 대한 인정은 제4차의 경우처럼 요식에 불과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처음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5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해당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문교부도 이런 측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차와 5차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선택 교과로 종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문교부가 빠른 시일 안에 자유선택 교과나 혹은 교양 선택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종교교육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과서의 인정제도와 관련되어서도 교양 선택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인정 심의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의 건학정신의 강조와 종교교사들 자신들의 종교와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종교교과서에 대한 교육적 열망은 그렇게 쉽게 현실화 될 수 없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앞의 과정들과 다르게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⁵⁾ 하나는 이전에는 없었던 교양 선택 교과 전체의 방향이 수립되어서 선택교과목의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선택교과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종교교육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중심의 종교교육이었다면 이번 과정에서는 종교학적

4)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

5) 문교부 고시 제1992-19호, 1992, 3. 1.

토대 위에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종교교육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종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특정 종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단위도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에서는 기존의 종교교육의 일반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종전대로 특정 종교 중심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종교교과서도 교육과정의 취지를 따라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간행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교육과정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종교교과서를 심의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학적 토대 위에서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종교교과서에 대한 인정제도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공식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종교과목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종교는 ‘선택 중심 과정 보통교과’안의 교양교과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양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⁶⁾ 특히 제6차 교육과정과 달리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교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점점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대한 성찰과 종교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열망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래서 인정을 목표로 종교교과서에 대한 개발계획도 일선 중립학교나 중립학교 협의회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맞추어 종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인정 심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분 종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개정작업도 이루어졌다. 특히 2007년 “한문 및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어 고시되었다.⁷⁾ 또한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 개정 토론회”를 기반으로 처음 사용했던 “종교”라는 과목 명칭도 바뀌었다. “종교”라는 명칭 대신에 “생활과 종교”로 바뀌었다. 그러나 다시 “종교”나 “생활과 종교”라는 명칭은 여전히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담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보통교과 교양의 일반 과목에서 “종교” 혹은 “생활과 종교” 과목은 모두 2014년부터 “종교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종교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⁸⁾ 앞으로 “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교과서가 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한국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과서로 승인되고 있는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체가 되어서 직접 발행한 ‘국정도서’,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의 감독 하에 출판사가 중심이

6)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7), ‘생활과 종교’ 참조.

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4), ‘고등학교 교양과정’, 14쪽.

된 ‘검정도서’, 그리고 자유롭게 교과과정에 따라서 출판한 도서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도서를 채택하여 지역 교육청에 신청해서 승인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초등이나 중등학교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모두 국정이나 검정 또는 인정 도서이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법상 자유 발행 도서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⁹⁾ 물론 해당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특수교육의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모두 국정, 검정 그리고 인정도서에 대부분 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교과과정으로 중등교육기관에서는 인정 종교도서를 교과서로 채택하여 정식 교과목으로 종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종교교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종교과목 이외의 교양과목을 동시에 개설되도록 되어 있다.¹⁰⁾ 아직도 기존의 인정제도를 통한 종교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종립학교의 경우 다른 형식으로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를테면, 재량이나 특별활동 교과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장의 허락과 해당 교육청에 매년 보고하는 연 단위 교육과정을 고시할 경우에는 인정도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종립학교의 경전이나 신앙내용을 교육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 ‘정신여고’ 교육과정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보고된 것을 보면, 교양 교과에서는 “종교”와 “철학”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것과 더불어 체험활동 교과에서는 인성교육을 선택해서 성경을 교재로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Ⅲ.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기준과 진행절차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절차는 교육법의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심의회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¹¹⁾ 심의회가 구성되면 도서 심사기준은 교육부가 교과서 인정과 관련해서 고시한 준거를 따르고 있다. 종교교과서 인정에 대한 심사 기준은 2008년도 자료부터 찾을 수 있었다.¹²⁾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살펴보면 “심의 있는” 인정절차를 받을 경우 일차기준과 수정 제안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하여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이차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심의 없는” 인정절

9) 초·중등 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 교육법의 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제29955호)으로 공포되어 있다.

1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7), 21쪽.

11) 대통령령 제29955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20조.

12)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자료실(<http://www.serii.re.kr>).

차를 받을 경우에는 이차기준은 필요 없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을 통해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통기준은 심의위원회가 함께 평가를 하는 것과 또한 심의 위원회 심사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심사도 있다.

먼저 “심의 있음” 혹은 “심의 없음”의 경우 모두 일차 심사에 해당하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의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정도서의 공통기준은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그 기준들은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 목적과의 일치”, “내용구성의 창의성” 그리고 “내용의 보편타당성”과 부합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¹³⁾ 앞의 두 기준은 법과 연결된 부분이고 나머지 두 기준은 교육적인 차원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공통기준은 어떤 부분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교과기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과정과 연결해서 열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¹⁴⁾ 종교교과서 심의회의 기준은 기존의 종교교과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지가 그 핵심으로 되어 있다. 그 기준은 모두 “교육과정과의 균형성”, “이론적 배경”, “학습목표와 내용의 관련성”, “학습 분량의 적정성”, “학습수준의 적정성”, “학습내용의 시의성”, “학습의 자율성”, “창의적인 교수·학습”, “구성체제의 적정성”, 그리고 “표현 표기의 적정성”으로 되어 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것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타 교과와 연계성” 항목이 “창의적인 교수·학습”으로 변경되어서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차 심사 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차 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 있음”의 형식을 취하는 인정도서에 해당 한다. 이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1년의 기준에는 변화가 없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 기준은 일차에서 수정을 지시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인 “수정지시 사항”과 “체제 등의 적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제 등의 적합성”에서는 다시 “표현 표기”, “편찬체제”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일차 심사의 경우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 다시 공통 심사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 없음”의 기준을 검토해보면 내용상으로는 “심의 있음”의 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단지 이차 심사가 없으므로 심사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차이이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심의 있음”의 형식에서 공통과 교과기준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통 검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거의 물음 형식으로 되어있고 이차 기준이 있는 형식과 달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준은 세부 참고 항목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모두 합해서 여섯 가지 질문이 인정 도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어지고 있다.¹⁵⁾ 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13) 위와 동일.

14) 위와 동일.

15) 위와 동일.

①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② 특정 종교 국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선전, 옹호·우대, 비방·왜곡 등의 내용이 있는가? ③ 각종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가? ④ 교육법,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⑤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된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독자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 ⑥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 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음으로 이런 기준들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과서가 되기 위한 승인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식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첫째, 먼저 종교 도서 중에서 채택하려는 도서를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일반 기준이 되는 한국의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의 “한문 및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을 토대로 출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채택하려는 종교교과서는 기존의 종교 교육과정과 상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부합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은 종교교과서로 채택하려는 도서를 해당 지역 교육청 교육 과정연구부에 “심의 있음”과 “심의 없음”의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¹⁷⁾ 이 두 형식의 차이점은 전자는 두 번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반면에 후자는 한번만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질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된다. 사실 “심의 있음”과 “심의 없음”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교과서 구분고시’에서는 내년부터 단순히 “인정”으로만 심사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16) 위와 동일.

17) 서울특별시 교육정보연구원의 자료실(<http://www.serii.re.kr>)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단,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 공동으로 우리 원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⑧-⑩ 서류는 제외(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 ①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서식1) 1부
- ② 심사본 8부(출판사와 저작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 ③ 저작자 이력서 각 1부
- ④ 저작자 대표 선임장 1부
- ⑤ 책별 정가 계산서 1부
- ⑥ 출판사 신고필증 사본 1부
- ⑦ 인정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 ⑧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⑨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서식2)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본 1부
- ⑪ 출판사가 최근 3년간 발행한 교과용도서 목록 및 발행부수 1부
- ⑫ 서약서(서식3) 1부
- ⑬ 인정도서 인정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서식4) 1부

18) 교육과학기술부 외, “인정도서 업무 매뉴얼”(2011년 9월 27일 서울교대 설명회), 17쪽.

셋째, 지역 교육청 교육과정 연구부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다섯 명으로 구성하여서 학교장이 인정 심의 신청을 한 도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종교도서의 출판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심의위원은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종교학자, 해당 종립학교의 종교전통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 교육학자, 현장교사 또는 행정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도 각 시도 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심의위원회와 절차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

넷째, 심의과정이 끝나면 지역 교육청 ‘교육과정 연구부’는 다시 그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 연구 정보원 교육과정과’로 송부한다. ‘교육과정과’는 지역 교육청 심의 결과를 또 다른 심의회를 구성해서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대체적으로 교과과정 심의회는 국, 과장급에 해당하는 행정관련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종교교과서와 관련된 학문연구자나 현장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심보다는 행정처리가 그 중심적 논의가 된다. 최종적으로 해당 도서가 승인되면 그 도서는 지역 교육청 교육감 인정이라는 승인표시가 되어있는 도서로 간행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인정도서로 승인된 교과서를 자유롭게 종교교과목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종교교과서로 인정을 받은 도서는 이러한 인정 과정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교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IV. 유럽과 북미의 종교교과서 간행 상황

유럽과 북미의 종교교과서 간행절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연구자는 세 명의 외국 연구자와 한 명의 교육청 종교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다. 한 명의 교육청 담당자는 요헨 바우어(Jochen Bauer)이다. 바우어와의 전자메일 교환을 통해서 독일의 종교 교과서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 수 있었다. 세 명의 연구자는 영국 워릭(Warick)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이면서 종교교육 학위과정과 연구소를 책임 맡고 있는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소장과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교육학 학위(석사)과정을 책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명한 사립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 철학과 종교교육 교사이기도 한 다이엔 무어(Dian Moore)교수, 그리고 거의 10년 정도 종교교육 교사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덴마크의 남부 덴마크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이면서 현재 국제 종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History of Religions)사무총장인 팀 옌슨(Tim Jensen) 교수이다. 아마도 지금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신앙적 차원을 넘어서 종교학적 차원의 대표 종교교육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이 네 연구자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 앞의 세 명의 연구자들이나 종교교육 행정담당관과 전자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였다. 종교교과서와 관련되어서 적어도 북미에서는 몰라

도 유럽에서는 그래도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국정은 아니더라도 검정이나 인정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답은 모두가 아니었다. 거의 모두 종교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출판되고 있고 채택도 교사나 학교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종교교과서 인정제도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시장(市場)이 결정할 문제이고 문제가 있는 교과서는 교사나 학교가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도태가 된다는 것이 공통된 대답이었다. 하나씩 보내온 대답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로버트 잭슨 교수로부터 온 메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자는 2011년 8월 26일에 영국과 유럽에서 종교교과서 인정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잭슨은 그 다음 날인 8월 27일 오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내왔다. 대답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생략하고 인정제도와 관련된 내용만 인용하기로 한다.

영국에서는 간행된 것 중에서 어떤 교과서도 교사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나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영국 학교들에서 세계종교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나 전자 자료들 중에서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종교교육 자료들의 질(quality)과 더불어 공동체 결속을 해나가는 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으로 있는 종교교육 연구소에서 이 일을 수행하였습니다.¹⁹⁾

다시 이번 연구자는 잭슨에게 8월 27일 인정제도와 관련되어서 법규나 아니면 종교 교과과도서 심의위원회 같은 평가 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잭슨으로부터 대답을 받았다. 해당되는 내용만 선택해서 인용하기로 한다.

내가 지난 번 메일에서 지적하였듯이, 영국이나 웨일즈에서는 교과서 평가심의 위원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출판사들은 도서출판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므로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학자들이나 종교교육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 출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도서를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로버트 잭슨은 토니 블레어가 영국 수상으로 재임할 당시에 영국 교육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다. 잭슨이 소장으로 있는 워릭 대학교 종교와 교육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연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사실 토니 블레어는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세계 신앙재단(Global Faith Foundation)”을 설립해서 최근에는 거의 그 재단 일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 이 재단이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모두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작년에도 2010 베이징 포럼의 주제 강연자로 초청되어서 동아시아의 종교교육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주류 출판사들은 종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정확성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종교기관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때때로 특별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책에 대한 리뷰를 통해 지적이 되어서 판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종교와 교육 연구소’ 소장인 다이엔 무어교수에게 연락을 하였다. 무어 교수는 매년 종교교사 연수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그 연구를 또한 미국 종교학회에서 몇 년 동안 미국 종교학회와 더불어 발표회를 주관하였다.²⁰⁾ 이번 연구자는 8월 29일에 교과서 인정제도나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무어 교수가 그 다음 날인 8월 30일에 온 답을 보면 미국의 상황도 영국의 상황과 그렇게 많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종교교육은 미국에서는 필수과목(required course)이 아니므로 교과서를 간행하는데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떤 인정 평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학문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을 대비하면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지에 대한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미국 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와 연계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서들은 미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러한 지침서는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전자메일이 보여주듯이 미국 종교학회에서는 다이엔 무어 교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이고 종교학적인 논의를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다.²¹⁾ 그래서 지금도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미국종교학회의 분과에서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결국 종교학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미국적 삶의 양식 때문에 학교 현장이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각 분과 모임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유럽에서 처음 모임이 개최되었고 아직도 유럽의 분위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국제 종교학회(IAHR)의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인 팀 옌슨 교수가 보내온 인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팀 옌슨 교수는 앞의 두 연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15년 정도를 중등교육기

20) Diane L. Moore,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07), 서문을 참고해 보면 그간의 여정을 잘 읽어볼 수 있다.

21) 최근까지 다이엔 무어 교수는 미국 종교학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하루 전이나 아니면 학회가 끝난 이후 다양한 주제로 종교 교육적 논의를 이끌었다. 무어 교수의 논의 덕분에 몇 년 전부터는 미국 종교학회에서는 유럽의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교육 분과와 어떻게 종교를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종교와 교육과 관련된 분과 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관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가르친 경험을 갖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종교교육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갖고 있다.²²⁾ 그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은 종교학 교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국제 종교학회와 미국 종교학회를 중심으로 종교를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옌슨 교수에게도 앞의 연구자들에게 보낸 것처럼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처음 8월 29일에는 그가 국제 종교학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유럽의 종교교육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유럽의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대답은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 직접 인용해보기로 하자.

나는 김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유럽의 동료 학자들에게 대답을 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예상과는 반대로 네덜란드에는 종교교과서의 인정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ندا 엘버트(Wanda Alberts) 교수로부터는 독일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그러한 공식적 인정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연방 주(州)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피터 안트(Peter Antes) 교수에게도 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종교교육 교과서(다른 교과서를 포함해서) 시장은 전적으로 자유발행 체제입니다. 종교교과서에 대한 제약은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만약 종교교과서가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교사도 그 교과서들을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만간 있을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유럽종교학회(EASR)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연구자들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옌슨 교수의 대답 중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한 것은 독일의 경우와 덴마크의 경우 때문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한다. 일단 다시 옌슨 교수가 첫 번째 대답을 통해서 보내온 내용 중에서 “종교교육과정에 따라서 종교교과서를 출간해야” 한다는 의미와 교과서 출간과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유발행 체제이고 또한 국가 교육과정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교과서 집필과 관련되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국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교과서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월 9일에 옌슨 교수로부터 받은 대답을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하자.

덴마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시장은 완전히 자유발행 개방체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 이외에는 그 체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교과서는 종교교육 담당교사들(초등, 중등 그리고 상급 중등학교(upper secondary)) 그리고 또는 대학교 종교학 교수들에 의해서 간행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 권의 종교교과서를 직접 출간하였고 더 많은 분량의 교과서들을 편집하기

22) Tim Jensen, “The Study of Religion and Religion in Denmark”, *Netherlands Theologisch Tijdschriften*, 61/4, 2007, pp. 329-342.

도 했습니다. 지금도 다시 상급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종교교과서를 편집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민 기어츠(Armin Geertz) 교수도²³⁾ 종교교과서를 출간했습니다. 여러 권. 그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종교교과서를 출간했습니다. 많은 교과서들을 출판한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대단합니다. 물론 종교교과서의 내용들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조정(저자인 옌슨의 강조, 역자 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국가 교육과정이 규정한 교육의 목적, 방법,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는 단지 판매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국가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들이 좋아하면 판매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옌슨 교수의 답변 메일을 통해서 독일의 경우가 독특하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르크 대학교의 종교교육 학자인 울프람 바이스(Wolfram Weiss) 교수에게²⁴⁾ 독일에서의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에 관한 질문을 보냈다. 독일의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많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학자는 울프람 바이스(Wolfram Weiss)이다. 바이스 교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종교교육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종교교육학 연구 프로젝트를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 울프람 바이스 교수의 소개로 독일의 한 지역의 종교교육 책임자인 요헨 바우어 담당관에게도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답의 내용은 독일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교과서 인정제도는 없고 각각의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종교교과서에 대한 인정제도가 있다는 메일을 받았다. 독일의 경우는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도 사실상 엄격히 국가의 교육방향이나 주의 교과과정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학교와 교사들의 선택권이 상당히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접 그가 보내온 장문의 메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문제는 16개 주(Länder)의 독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절차, 국가 교육 과정, 국가 위원회 그리고 국가의 교육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6개 주의 교육부 장관들(ministers)의 회의(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동의하였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틀(framework)은 존재합니다. 이 틀은 주제를 제공해주고 자격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주의 교과과정은 이러한 틀과는 상당히 차이가

23) 팀 옌슨 이전의 국제 종교학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덴마크 아리우스(Aarius)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종교 연구방법론과 북미 원주민(호피 부족) 연구에 모아져 있다. 최근에는 종교연구의 관점에 대한 연구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다른 두 명의 학자들과 함께 편집하였다. 특히 인지종교학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모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24) Robert Jackson, Siebren Miedema, Wolfram Weiss, Jean-Paul Williams, (Eds.), *Religion and Education in Europe: Developments, Contexts and Debates*(New York: Waxman Münster, 2007), pp. 9-26, pp. 243-65. 같은 해에 노르웨이에서도 유럽의 종교교육의 동향을 분석한 책이 출판되었다. Elza Kuyk, Roger Jensen, David Lankshear, Elisabeth Löh Manna, Peter Schreiner (Eds.), *Religious Education in Europe: Situation and Currents in Schools*(IKO Publishing House, 2007) 앞의 책과 함께 유럽의 종교교육의 논의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있습니다. 종교교과서의 인정제도는 모든 주의 이러한 회의의 안전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더욱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교육은 국가와 교회(각각 종교 공동체들) 사이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입니다. 교회들은 종교교육의 내용들에 책임져야하고 국가는 일반 교육적 틀과 독일헌법이 규정한 한계들(이를테면 인권과 같은 문제처럼)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교회들로 하여금 종교교과서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종교교과서 인정에 대해서 16개 주는 각각 서로 매우 다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떤 주(이를테면 내가 일하고 있는 함부르크의 경우처럼)에는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없습니다. 교사들과 학교들이 어떤 종교교과서가 국가와 교회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주들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엄격한 주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대표자 연합 위원회가 종교교과서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대표자들이 따로따로 종교교과서들을 평가해서 제안된 종교교과서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교과서의 평가 기준들은 (이론적으로는) 16개 주의 (16개의 다른)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종교교과서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연구소나 그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 안에서 출판사들이 간행하기 때문에 종교교과서에 대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출판사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점은 각각의 다른 주들의 다른 교과과정을 똑같은 교과서로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문제는 출판사들로 하여금 두 세 개의 가장 큰 주(Länder)의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학교 교과서를 만들어서 다른 작은 주들도 그 교과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의 교과과정이 따라야 할 주제나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임무 등과 같이 어떤 공통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다면, 출판사들은 교육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모호한 방식을 취해서 조정할 수 있는 통찰을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자기주도의 학습 그리고 개방적인 배우의 과정들이 중심인 시대에서, 종교교과서들의 중요성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있습니다. 독일학교들에 있어서 교사는 주로 (인정을 받았든 아니든) 다양한 종교교과서들의 어떤 특정 부분을 복사해서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 시장이나 학교교실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종교교육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V. 악보(樂譜)로서의 종교교과서 개발의 유의점

종교교과서는 교사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악보이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교육의 종교교과서도 모두가 감동을 주거나 따뜻함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 선율 안으로 스며들기 보다는 튀겨 나가기도 한다. 악보를 통해서 연주하는 학생이나 이끄는 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깊은 음을 울리게 하지 못하거나 주위의 음을 듣지 못하게 하면 아름다운 합창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교과서보다도 종교교과서는 그동안 그려왔던 개인적 삶의 합창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심적인 합창을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악보이다. 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함께 주위의 음과 조절을 해서 합창 선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고의 합창의 선율을 배울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악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핵심이 될 수 있는 차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차원을 논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한국의 종교교과서에 대한 인정제도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와 글로벌 사회에서 과연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정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은 없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는 기존의 인정제도에 토대를 둔 상태에서 제도적이고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후자는 종교교과서의 인정제도 자체에 대한 모순점을 비판적으로 함께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먼저 기존의 한국 교과서 인정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이나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종교과목이 선택교양의 한 과목으로 위치하고, 앞으로는 “종교”나 “생활과 종교”라는 명칭대신에 “종교학”이라는 명칭으로 종교교육을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생겨난 것은 종교교육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교육과정이 좀 더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 과정에 대한 심화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기존의 종교 교육과정이 교양 선택과목의 교육과정과 부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종교교과서에 대한 평가기준도 만들어졌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종교에 대한 교육과정은 단지 종교에 대한 균형적이고 정보(情報)적인 차원만이 강조되어 있어서 종교에 대한 사실적 이해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청소년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양 교육과정의 목표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인정심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감동의 악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인정심의 신청과 관련되어 있다. 교과서의 검정제도의 경우와 달리 인정제도에서는 인정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나 저자에게 있지 않고 해당 학교장에게 있다.²⁵⁾ 인정제도는 저자나 발행자의 입장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출판사나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도서를 이익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출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용적으로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양질의 종교 교과서 출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5) 대통령령 제29955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제1항.

도 교과서 인정제도의 인정심의 신청 주체를 사용자 입장 보다는 출판사와 저자에게로 변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도 국정이나 검정교과서에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유롭게 다양한 종교교과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양질의 종교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종교교과서 인정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이다. 과연 인정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유럽이나 북미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해당교육청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인정심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도 주(州)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인정제도라기 보다는 ‘자유발행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과도기여서 어느 정도 종교교과서 인정제도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종교교과서의 출판은 자유롭게 출판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인정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은 좋은 종교교과서가 태어날 수 있는 종교 교육과정에 대한 열린 토론과 심화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종교교과 교육과정은 종교일반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세계 종교전통에 대한 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종교와 해당 학교의 건학 정신과 연결된 종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어 교과서의 내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종교교과서에 대한 창의적인 시도나 주제 중심의 종교교과서에 대한 전개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종교교육 교과과정은 인접 교과목의 교과과정이나 교과서 안에 기술되어 있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과 중복 혹은 대립적인 경우도 있고 용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유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몇몇의 특정 연구자가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종교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개방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는 한국 중등학교 교육의 목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듯이 인격의 발달에 어떻게 종교교육이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사실 종교교육은 근원적으로 미래 시민으로서의 청소년기 학생들의 개방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발달시켜나가는 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교육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모두 나름대로 종교에서 그 근원적 원형을 찾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²⁶⁾ 과연 서구나 동양에서 교육의 원형적 논의를 해 가는 데 있어서 종교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서는 어떤 교육적 패러다임도 찾을 수 없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를 교육적 소재로만 강조하고 있는 지식중심의 교육을 넘어

26) 이계학, 서명석, 김재영, 임병덕 공저, 『인격 확립의 초월성』(서울: 청계 출판사, 2001), pp. 289-90.

서 종교로부터 인격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적 원형을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한다.²⁷⁾ 이런 차원에서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초기 연구자들이 강조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인격이나 심성교육의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던 연구방향은²⁸⁾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반추해야 한다.

다른 하나도 한국 학교교육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 목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한 교육적 강조를, 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강조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에 그 최종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세계가 더욱 다양하게 가까워지면서 교육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을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게 세계시민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아마도 이런 문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언어나 국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작 핵심적인 문제는 그 이면에 놓여 있는 다종교적 상황의 시민 이해교육에 모아져야 한다.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종교적 상황에서 자신의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화음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²⁹⁾ 이런 측면에서 종교교육은 점점 더 글로벌한 세계가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육의 원천이 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³⁰⁾ 종교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적극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심화될 수 있어야 보다 세계시민 교육의 모체로서 종교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새롭게 심화된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종교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가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의 교육적 현실을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VI. 나오는 말

지금까지 발표자는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외국의 상황,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연결해서 종교교과서 발행과정과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27) M. Grimmit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ing Religions and Personal, Social and Mora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MacGrimmons: Great Wakering, 1987), p. 225.

28) 초기 한국종교교육학회지의 글들을 살펴보면 박선영과 이계학 등의 글들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이나 인격의 발달에 초점을 둔 종교교육학적 논의를 많이 읽어낼 수 있다.

29) Ninian Smart, *Secular Education and the Logic of Religion* (London: Faber and Faber, 1964), pp. 103-6.

30) 김재영,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Vol.46 (한국 종교학회, 2007), 122쪽.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인정제도가 생기면서 비로소 종교 교과서도 하나의 정규 교과서로 인식되었고 또한 인정제도가 생기기 이전과 비교해서 내용적으로도 특정 종교에 대한 강조보다는 나름대로 종교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와 다른 종교전통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갖도록 교과서에 대한 제도적인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히 “종교”, “생활과 종교”라는 과목명칭 대신에 앞으로 2014년부터 “종교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더욱 더 교양 선택과목으로서 종교에 대한 지식적인 교육이 심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교과서의 인정기준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감의 악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교과서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하나는 종교교과서 인정도서 신청자격은 제도적으로 사용자보다는 의욕적으로 종교교과서에 대한 구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저자나 출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종교교과서 인정제도는 궁극적으로 자유발행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종교교과서를 나름대로 출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채택이나 거부 평가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종교교과서 인정제도가 아니면 종교교과 교육과정은 모두 학생의 관점이 어떻게 인정제도가 교육과정 안에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인정제도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고, 특정 종교도서의 종교 교과서로서 인정 사용권 신청은 학교장에게 있고, 종교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은 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 지식의 내용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나 종교와 관련해서 갖게 되는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한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기존의 종교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중심으로 교과 과정이 서술되기 보다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어떻게 종교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토대로 종교교과 교육과정 안에 개진되어야 종교교육의 악보로서의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7), ‘생활과 종교’.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4), ‘고등학교 교양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외. “인정도서 업무 매뉴얼”. 2011, 9. 27.
- 김재영.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Vol.46. 한국 종교학회. 2007.
- 김진영 외.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준거」. 한국 검정 교과서 연구보고서, 2010-02. 대통령령 제29955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제1항.
- 대통령령 제29955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20조.
-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
- 문교부 고시 제1992-19호. 1992. 3. 1.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자료실(<http://www.serii.re.kr>).
- 이계학·서명석·김재영·임병덕 공저. 『인격 확립의 초월성』. 서울: 청계 출판사. 2001.
- 초중등 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1항.
- 허강 외.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03.
- 홍우조 외.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6-02.
- Diane L. Moore,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07.
- Elza Kuyk, Roger Jensen, David Lankshear, Elisabeth Löh Manna, & Peter Schreiner (Eds.). *Religious Education in Europe: Situation and Currents in Schools*. IKO Publishing House. 2007.
- M. Grimmit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ing Religions and Personal, Social and Mora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MacGrimmons: Great Wakering. 1987.
- Ninian Smart. *Secular Education and the Logic of Religion*. London: Faber and Faber. 1964.
- Robert Jackson, Siebren Miedema, Wolfram Weisse, & Jean-Paul Willaime (Eds.). *Religion and Education in Europe: Developments, Contexts and Debates*. Waxman Münster: New york. 2007.
- Tim Jensen. “The Study of Religion and Religion in Denmark”. *Netherlands Theologisch Tijdschriften*. 61/4. 2007.

원고접수 : 2011년 11월 25일 1차 심사 : 12월 6일 게재승인일 : 12월 18일

연구자소개 : 김재영

① 전공 : 종교학

② 관심영역 : 종교심리학 및 종교교육

③ 주요논저 : ‘William James and Bernard Lonergan on Religious Conversion’ in *The Heythrop Journal*, 51(2010), ‘William James and the Spirit of Complexity: A Pluralistic Reverie’ in *Th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0(2010)

④ E-mail : chaekim@sogang.ac.kr

Abstract

**The Accreditation Process Change and the Cultivation
Suggestion for a New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Kim, Chaeyoung

Soga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examine critically the accreditation process change of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publication and then articulate the ignored part in the present national curriculum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I analyzed the recent change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change from the fourth to the seventh renovated national curriculum process. In the process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accreditation process was not initi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but the religious mission funded secondary school. The mission funded school wanted to establish religious education as a regular class subject in the secondary school. So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as accepted the mission school suggestion with one condition. The condition is on the publication of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through the accreditation process. If it would not have an official accreditation for any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it could not be used as a textbook in religious education class. Due to this condition, the real responsible person is not the writer of textbook and publisher but the school principal. I think that this condition has been the probl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good quality textbook.

For the reference to the foreign case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Europe and North America, I have exchanged many e-mails with the key scholars of religious education and discussed on the issues. Alas! I came to realize that they do not have any accreditation process system of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publication. They all commonly emphasized that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should be published freely. Text writer and publisher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constituent for the good quality of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If so, eventually the free publication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In this sense, Korean present accredit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into the free publishing system. It will be helpful for the school to choose good quality textbooks. It will also be encouraging for the textbook writer and the publisher.

Finally in this paper I suggested two things for the future concern of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cultivation. The first thing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 and other subject curriculums. For example, Korean history, world history, and philosophy subjects have section on religion which are overlapped with religious education. So it should be rearranged with other curriculum committees. The second thing is about concern of student experience and thought on religion in their life. The present curriculum is focused on knowledge and teacher oriented curriculum. Due to this aspect, student dimension does not be considered enough. Further the present curriculum does not seemingly welcome the free expression of religion related experience in the class. I think that it should be more welcomed for the better future Korean and global citizen whatever students would have opinions about religions in class. Religious education class should be more experimental for student's own critical reflection of religion.

Key words: Accreditation Process, Religious Education Text Book as Sympathetic Notation, Citizenship Education, The Free Publishing System in Europe and North Ameica, National Curriculum